

위로의 하나님 승리의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나훔사

나훔 1:7-13, 누가복음 7:1-10

정윤돈 목사님

성경은 책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게 있다. 그런데 나훔은 잘 안 떠오를 것이다. 나훔서는 앗수르 멸망을 예언한 책이다. 그러므로 나훔서는 경고를 받은 앗수르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지만, 그 침략을 받고 있던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는 희망과 소망,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천국에 가는 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지옥에 가는 날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기 바란다. 똑같은 사건도 믿음 안에 있으면 축복의 시작이 되지만, 믿음 밖에 있으면 재앙과 저주가 된다.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서론 : 나훔의 배경

(1) 나훔의 고향은 엘고스다(나:1). 어떤 학자들은 이곳이 갈릴리 나사렛과 가까운 곳이라고 보고, 또 다른 학자는 가버나움이라고 주장한다. 가버나움의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2) 성경에는 사람 이름과 땅 이름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나훔도 마찬가지다. 그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많이 어렵다.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내부적으로도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와 대한민국의 위로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념 갈등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 맞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100% 틀린 이야기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성경적, 복음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데, 100%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100% 완벽한 축복의 계획임을 믿어야 하겠다.

(3)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기 100년 전에 요나는 하나님의 강권으로 인해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예상 외로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요나가 가서 복음을 잘 전한 것도 아니고 통명스럽게 했는데 회개해 버렸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며 주변 나라들을 괴롭혔던 것이다. 고고학자들이 니느웨를 발굴해 보니까 요나의 무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가 있었던 곳과 멀지 않은 곳인데, 그 동네에 요나의 이름과 관련된 지명이 남아있다고 한다. 평생 요나가 나름대로 거기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갈등이 계속 있었을 것 같다. 그 증거가 바로 나훔서다. 722년에 앗수르는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정확한 해일이 안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니느웨도 멸망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요나가 제1의 RUTC운동을 이스라엘에서 했는데, 그것은 잘 했다. 그런데 다문화, 세계복음화 현장에서는 후대에게 말씀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된 것이다. 왜 우리가 일본, 중국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이웃나라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나라가 우리의 축복의 발판이 될 것이다. 언약 굳게 잡고 세계를 살리는 주역 되시기 바란다. 앗수르는 다시 포악한 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4) 나훔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왕국은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결국 승리한다는 영적인 의미도 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나훔서에 담겨 있다고 해석한다. 앗수르를 사단의 왕국으로 보는 것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사단의 왕국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키게 된다. 그것이 나훔서에 담겨있다

는 것이다. 그래서 나훔 1:4 이하의 내용은, 앗수르의 멸망이 아니라 사단의 왕국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다. 나훔 1:4 이하를 보라. 이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말세지말에 세계를 심판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나훔 1:6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라.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날이 무서운 날이 된다. 심판의 날이 된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는 축복의 날, 영생이 시작되는 그날이 된다. 나훔 3장에 기록된 앗수르의 범죄와 멸망에 대한 내용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 어떤 사단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앗수르와 니느웨를 믿지 않았다. 역사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앗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152번이나 나온다. 역사상 다른 어느 기록에도 이런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과 성경을 비판하는 자들이 이것 때문에 성경이 신화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19세기에, 프랑스의 어떤 고고학자가 홍수로 묻혀 있던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성곽의 넓이가, 마차 세 대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었다. 그런 거대한 성이었던 것이다. 19세기 초중반에는 이집트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앗수르도 믿지 않았고 노아와 방주도, 니므롯도, 바벨탑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런데 땅 속에 묻혀 있었던 니느웨를 발굴함으로써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이 증거된 것이다. 지금 램넛트들은 학교에서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은 역사를 배울 것이다. 램넛트들이 그런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방주를 지을 기술이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하지만 그 시대는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시대다. 지금도 만들기 힘든 것들이다. 방주를 지은 나무는 지금의 나무와 다르다. 호주에는 시멘트보다 강한 나무가 있다.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에는 기술도 자제도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홍수로 갑자기 묻혀 버렸기 때문에, 앗수르 문명은 갑자기 사라졌지만, 그만큼 땅 속에서 잘 보존될 수 있었다. 지금도 니느웨에서 발굴된 수많은 토판을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나훔 1:8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다("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 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물론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다. 그것이 신약 본문에 나온 백부장이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믿지 않았는데, 이방 사람 백부장은 믿었다.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 하셔도 나를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란다. 강단의 메시지를 굳게 믿으면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신도 알고 주변도 인정할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나훔을 통해 두 가지 큰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1. 하나님의 위로

첫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며, 그 위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1) 언약적인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원의 언약을 주셨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창3:15). 창세기 6장 이후에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통해 희망과 언약을 주셨다. 방주 안에 있으면 살지만 방주 밖에 있으면 재앙이다. 방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란다.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방주 밖에 있으면 계속 염려가 생기고 짜증이 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이 위로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방주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제가 발생하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망과 언약을 주셨다.

(2)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언약으로 주시고 성취하셨다. 모세를 통해 광야 왕국을,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셨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말씀을 정리하고 회당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만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었다. 이것이 제2의 RUTC운동이다. 가서 만드는 것이다. 램넛트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모든 사회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제2의 RUTC운동이다.

(3) 땅 끝까지 정복할 것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를 주셨다. 하나님

은 적국인 앗수르와 니느웨를 멸망시키셨다. 바벨론, 메대-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앗수르가 멸망했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대적에게 원수를 갚으시게 될 것이다.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한다. 우리는 믿고 맡기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는 살리는 일만 하면 된다. 무슬림들처럼 사람 죽일 이유가 없다. 우리는 살리는 일만 하면 된다. 복음만 전하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시대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강대국들은 세계화, 복음화를 위한 발판이 되었다.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위로는 ‘슬프지? 울지 마’ 하는 정도가 아니다. 근본적인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끝까지 지켜 주겠다.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겠다.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 이런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위로에 집착하지 마라. 작은 어려움에 연연하지 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다.

2. 승리의 무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중요한 영적인 무기를 주셨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고 영적인 군사가 되었다. 영적 군사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기를 주셨다. 그런데 군인이 무기를 쓸 줄 모르면 역할을 할 수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진리의 군대다. 그런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현장을 정복할 수 있다. 승리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싸움을 위임하셨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서 사단 마귀, 귀신을 때려잡아야 한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1) 방어 무기도, 공격 무기도 되는 것이 다섯 가지 확신이다.

- ① 첫째가 구원의 확신이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
- ② 둘째는 인도의 확신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 ③ 셋째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어려움 앞에서 넘어진다.
- ④ 넷째로, 기도응답의 확신이다. 기도하면 응답과 해답을 주신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체험을 한두 번만 해도 신앙생활은 달라진다. 처음 주셨던 응답, 첫 사랑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날마다 그때 주셨던 이상의 기도응답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때를 써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응답의 체험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행복하겠는가. 어떻게 전도자가 되겠는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할 힘이 없으면 사람 살릴 수 없고 현장 정복할 수 없다. 확신을 가져라.
- ⑤ 다섯째, 사죄의 확신이다. 예수 믿었는데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사죄의 확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극악무도한 나를 용서하지 않았나. 그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나? 빼질 수 있나?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사죄의 체질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2)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받게 된 일곱 가지 신분과 권세를 24시 누릴 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승리의 무기다.

- ① 우리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게 된다. 마음 중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셔라.
- ② 둘째, 성령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 ③ 셋째, 기도응답이 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셨다(렘33:3).
- ④ 이때 네 가지 권세가 온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결박된다.
- ⑤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되어 도와줄 것이다. 큰 사고가 났을 때 보호받

을 수 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그런 증거를 주신다. 천군천사를 보내사 우리와 우리 후대를 지키신다.

- ⑥ 우리는 천국시민권을 가졌기에 지금 죽어도 걱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 ⑦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나머지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된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고민될 것이 없다. 나는 생각이 아주 짧다.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이 하시겠지 하고 1초만에 맡겨 버리기 때문이다. 생각 길게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란다.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3)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무기가 신앙의 발판 10가지다.

- ① 하나님의 주권이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다. 그러면 끝이다.
- ② 둘째,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다.
- ③ 셋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
- ④ 넷째, 우리의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다. 모든 기준이 성경이다. 답도 방향도 성경에 다 있다.
- ⑤ 다섯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 ⑥ 여섯째, 나의 처한 곳이 선교지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5분 이상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떠올라야 한다. 찌르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한다. 내게 가득찬 것이 찌르면 나오지 않나? 내 안에 가득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튀어나와야 한다. 갈등, 돈 걱정, 사업 걱정, 자녀걱정이 나오지 말고, 찌르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한다.
- ⑦ 일곱째, 생사회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 ⑧ 여덟째,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 ⑨ 아홉째,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 ⑩ 열 번째, 반드시 상급이 있다. 교회 일은 충성되게 하라. 죽으면 ‘걸, 걸, 걸’ 한다고 한다. 지옥 온 사람은 ‘그때 예수 믿을 걸’ 하고, 천국 간 사람은 ‘그때 봉사할 걸’ 한다고 (웃음) 후회없는 영원한 삶이 되기를 축원한다.

결론 : 나훔서에서 깨달아야 할 것

우리는 나훔서에서 몇 가지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 (1) 강대국을 향해 복음을 정확히 전하지 않으면 그 재앙과 피해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확신, 신분 권세, 신앙 발판의 언약을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다.
- (2) 후대에게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후대가 멸망하게 된다.
- (3)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인과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세상과 사단에 대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 정복의 미션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예베에, 3 오늘에 승리해야 되겠다. 영적인 무기를 갈고 닦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연습해야 되겠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도록, 이 믿음의 길에 서시기 바란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역사와 주변 강한 세력들에 의하여 노예생활, 포로생활 할 수밖에 없는 언약한 지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알려주시고, 세상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뿌리내려서, 후대에게 정확하게 이 복음과 언약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